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풍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LG Pharmacy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KWIK MORTGAGE
퀵 모기지
주택융자, 상용건물, SBA융자

타은행에서 융자 거부된 분 상담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리닉

732-248-1980 1939 RT.27 Edison NJ 08817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ustrust@gmail.com

김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Central Funeral Home
중앙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MAZDA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 2주일
2022년 1월 1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목 10a-3p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 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이사야서 62,1-5
화답송 시편96(95),1-2 7.23.7-8 7.9와 10 7c (@3 참조)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2,4-11

복음환호송 2 테살 2,14 참조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음 요한 2,1-11
<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간 전례 말씀	제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01/17/21	사무엘기 상권 15,16-23	마르코 2,18-22
화요일 01/18/21	사무엘기 상권 16,1-13	마르코 2,23-28
수요일 01/19/21	사무엘기 상권 17,32-33.37.40-51	마르코 3,1-6
목요일 01/20/21	사무엘기 상권 18,6-9;19,1-7	마르코 3,7-12
금요일 01/21/21	사무엘기 상권 24,3-21	마르코 3,13-19
토요일 01/22/21	사무엘기 하권 1,1-27	마르코 3,20-21
일요일 01/23/21	느헤미야기 8,2-4 7.5-6.8-10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12,12-30	루카 1,1-4;4,14-21

미사지향

연미사	- 봉헌자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최상우	- 최정원(레지나)
• 오흥순(카타리나)	- 가족
• 김영섭	- 이윤경(비르짓다)
• 허윤(에디)	- 육 글라라 가족
• 이태석(요한) 신부님	
생미사	- 봉헌자
•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김기현(모이세) 신부님	
• 장재명(파트리시오) 신부님	
• 하건철(안토니오)	- 허기욱(바오로)
• 오경선(원선시오)	- 허기욱(바오로), 박재영 (요아킴) 가족, 서정근(안셀모)
• 김영필(안토니오), 김종화(아가다)	- 대자
• 오경선(원선시오), 오애희(울리아나) 가정	- 성순영(라파엘라)
• 오용덕(헨리코)	- 서정근(안셀모)
• 이대우(베드로), 이재성(데레사) 가정	- 성순영(라파엘라)
• 김경근(이냐시오)	- 가족
• 이승빈(레오)	- 채희백(바오로) 가족 박락준(베드로)

주일 헌금

주일미사 참여 126 명	합계: \$1,649
2차헌금(유틸리티)	합계: \$435

교무금 납부 안내

박화성(1-6)	박락준(1)	백상헌(1)
정영철(1-2)	하건철(1-2)	김영필(1-2)
정진오(9-12)	박재영(1-2)	오경선(1-2)
허기욱(1-6)	이대우(1-2)	오용운(1)
서영원(1-2)	채희백(1-2)	합계: \$3,260

공지사항

코로나 관련 마스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미사 참례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제대 왼편(성가대 맞은 편)에 앉으시면 됩니다.

2차헌금

- 1월 23일 : Foundation For Catholic Education

매일미사 구독료 및 운송료 인상

- 2022년 1월부터 매일미사 구독료가 기존 \$2.9에서 \$4로 인상되며, 운송료도 기존 \$1에서 \$1.4로 인상됩니다.
-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일미사 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은 1월부터 매월 \$1.5씩 추가로 사무장에게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7개월에 대한 추가납부금은 \$10.5입니다.)

사목회 ZOOM 미팅

- 일시: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밤 9시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 신청

- 1월 30일 주일에는 설 합동 위령 미사가 봉헌됩니다.
- 설 합동 위령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 배송 지연 안내

- 2022년 본당 달력이 12월 3일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도착했지만 미국 전역의 인력난 문제로 하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교무금 납부 증명서 발급

- 2021년 세금 보고용 교무금 납부 증명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웅(미카엘) 부제님 진료 및 영성 상담

- 일시 및 장소: 매 주일 미사 후 오후 2시, 친교실
- 부제님과 의료 및 영성관련 상담이 필요한 신자들께서는 미사 후 친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1년 10월 - 2023년 10월 시노드 (Synod)

- 시노드는 우리 교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교회를 미래로 인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천 교구 웹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 <https://diometuchen.org/synod2023>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 요한 복음 > 2,1-11

그때에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 자 참 여 공 간

나의 레지오 성모님

레지오마리아 단원들은 매주 성모님 앞에 둘러앉아, 성령 송가로 시작되는 뗏세라 기도문과 묵주기도를 바친다. 어머니 앞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자녀들처럼 함께 기도하며 주 회합을 하는 동안, 형제 자매님들과의 일치감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생활 가운데 각자의 활동을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보고 드리는 시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쳐주고 계신 주님의 손길과 사랑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서 참으로 은혜롭다. 그래서 나 자신도 비록 아주 작은 것이라고 생각 될지라도 성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성모님과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보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겸허해진다.

또한 단원의 의무인 매일의 묵주기도를 통해 나의 게으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기도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성모님의 손을 꼭 잡듯이 묵주를 손에 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걸어 가신 길을 성모님과 함께 묵상 기도를 하고 나면, 잠깐을 같이 걸어도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주님의 선물이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 또 성모님을 찾고 묵주를 손에 들게 된다. 묵주를 지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그 길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이실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루카11,28) 가운데 가장 앞장서시고, 가장 모범적인 분이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며 본받으려고 모였다. 하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본당 사제와 레지오 규율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모님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교분 제2장 레지오의 목적) 레지오의 깃발아래 행군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손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므로 어떠한 곤경과 난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레지오마리아는 나의 신앙의 가장 큰 버팀목이며,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시는 성모님과 주님을 형제자매님들 안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의 샘이다. 레지오마리아 군단의 최초 사령관이신 성모님!

많이도 부족한 저를 꾸리아 단장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정신인 레지오마리아 정신에 더욱 충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 곁에서 도와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리아 단장 채미영(데레사)

레지오마리아와 함께하는 생활에 관심있으신 분은 레지오 단원이나 임원들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채미영 데레사, 부단장 신용철 다니엘, 서기 김태경 카타리나, 회계 한지혜 크리스티나